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다국적기업, 대중투자 진출 강화

점차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관점 아래 대중투자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하면 세계 500대 상위기업 가운데 52개 기업들이 지난해 이후 중국에 사업기반을 구축했으며 여기에 관련된 자본금은 계약기준으로 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8만 3,000건의 외자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여기에 관련된 외국인 투자는 계약기준으로 총 1,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이후 다국적기업들이 약속한 투자금액은 총투자 규모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연초부터 금년 4월까지 3,700개의 외국지사가 북경, 상해, 광주와 같은 중국의 대도시에서 들어섰다. 이 가운데 260개 가량이 GE, 듀폰, 지멘스, 자르딘과 같은 유명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출범됐다.

더욱이 IBM, 벨, 필립스, 미쓰비시, 마쓰시다 등은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국에 진출했으며 투자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시장은 한국과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 소속 대기업들도 끌어들이고 있다.

공식적인 소식통에 의하면 아직까지 중국에 투자를 단행하지 않은 다국적기업들의 63%가 5년이내에 중국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2. 미국, UR 이행법(안)에 이의제기

캐나다 재계협의회(BCNI)는 미국의 UR-(우루과이라운드)이행법안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UR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캐나다 재계협의회 측은 지난 14일부터 미 하원세입위가 심의에 들어간 미행정부의 UR 이행법안에는 UR의 무역자유화원칙은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합의에도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동협의회 토마스 디아퀴노 회장은 캐나다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측의 통상구제법규 개정방향이라고 밝혔다.

디아퀴노 회장은 구체적으로 보조금의 저의에 대한 조항이 새로운 UR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계관세·반덤핑규제조치·긴급수입제한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안내용도 UR 합의와는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행정부의 UR 이행법안에서는 상계관세규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인 초과검사규정을 폐지하도록 돼있어 상계관세로 인한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BCNI는 캐나다의 150여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된 재계모임으로 캐나다의 경제 및 통상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일본 NEC, CD롬장치 해외생산 확대

NEC 홈 일렉트로닉스는 CD-ROM 장치의 해외생산을 확대한다. 위탁생산을 맡고 있는 말레이시아 협력공장의 생산을 증대시켜 오는 '95년도 현지 생산능력을 '94년도보다 2.5 배 높은 320만대로 끌어 올린다. CD-ROM 장치의 경우 퍼스널 컴퓨터(PC)나 게임기의 멀티미디어화에 편승,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가격하락은 계속되고 있어 일본 각 메이커들의 해외생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NEC 홈 일렉트로닉스는 CD-ROM을 일본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개의 위탁공장을 통해 생산 중인데 빠르면 오는 10월 중 협력공장을 한곳 더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30% 미만인 말레이시아 현지생산 비율을 금년 하반기 중으로 50%, '95년도에는 80%로 각각 끌어올리게 된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생산대수는 '94년도 125만대에서 '95년도에는 320만대로 늘릴 방침이다.

향후 주력제품으로 부상하게 될 4배속 제품을 말레이시아에서도 생산하게 된다.

이와 관련, 부품조달은 싱가포르에 있는 NEC의 비즈니스 코디네이션 센터가 담당하게 된다. 조만간 개량설계 담당팀도 싱가포르에 생산시설을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싱가포르가 주요 부품공급 기지로 돼 있는만큼 부품선정과 연계돼 있는 설계과정의 해외이전도 부득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내에서 이 회사는 자사 공장 외에 강산·암수·신내천 등 3곳에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향후 일본 내에는 개발 및 초기생산 기능만을 남겨두게 된다. '95년도 이 회사의 일본 내 CD-ROM 생산은 80만대 정도에 그쳐 국내외분을 모두 합칠 경우 전년대비 60% 증가한 400만대 가량을 생산하게 된다.

4. 일본, 차세대 카네비게이션 시스템, 내년 9월 실용화

차세대 카네비게이션 시스템이 내년 9월경 일본에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카네비게이션 시스템이란 일명 도로교통 정보표시 시스템으로 빠르면서도 안전하게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와 관련, 일본 우정성이 실용화 단계까지의 스케줄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사용전과 할당에 따른 법령 개정안을 자문기관인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하게 된다. 카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쾌적한 운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일본 자동차의 3분의 1가량인 2,000만대 정도가 시스템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변기기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4조엔 규모의 시장형성이 추정돼 일본 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보표시 시스템은 소형 디스플레이어를 장착한 자동차가 가로등·신호기에 설치된 발신기내에서는 FM다중방송으로부터 보내오는 교통정보를 접수, 운전자에게 알리는 형식으로 돼 있다. 정체·사고·교통규제·주차장 이용상황 등과 같이 기존의 카네비게이션과는 전혀 다른 정보들이 리얼 타임으로 망라된다.

운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전의 시스템과 결합, 정체상황 등을 적절히 판단해 최고 속도의 운행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시스템은 주로 위성 등으로부터의 전파를 이용, 현재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줌으로써 최단 위치를 찾아내는 정도에 그쳤었다.

일본 우정성은 현재의 카네비게이션시스템 보급대수는 20만~30만대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오는 2005년까지 연평균 200만대 정도의 단말기 판매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 4조엔 규모의 대단위 시장형성이 관측되고 있다.

5. 일본 반도체상사들, 동남아거점 확충

일본 반도체 상사들이 동남아 지역의 거점확충으로 현지 세트 메이커들의 부품조달 국제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전파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트 메이커들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옮겨가는 등 일본 반도체 상사들을 둘러싼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사 중에서는 해외에 진출중인 일본계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공급 뿐만 아니라 외국산 반도체·전자부품·전자재료 등 취급범위를 확충해감으로써 경영효율을 개선해나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시장은 오디오·비디오(AV) 기기의 생산회복 등에 힘입어 금년들어 뚜렷한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엔고환경 하에서 AV 기기를 중심으로 한 민간용 전자·전기 기기의 생산설비는 아세안·중국 등으로 속속 이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 칩 마이크로 컴퓨터 등 일부 특정용도의 제품들은 일본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의 판매망은 아세안·중국 등지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장래 중국시장을 겨냥, 홍콩에 거점을 설치하는 반도체 상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반도체 상사에 있어서도 아세안·중국에 대한 생산설비 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에서의 산업공동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계 반도체 메이커들의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상사들 가운데서는 해외거점을 활용, 현지의 전자부품 내지 전자재료 등 관련

제품 취급을 확대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이미 대만의 유력 스위칭 전원 등을 조달대행하면서 기존의 수요업체에게 공급하고 있는 대형 반도체 메이커들도 나타났다.

그만큼 국제조달에 대한 세트 메이커들의 요구가 강한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6. 일본 게임기, “차세대유망상품” 각광

일본공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년 3월 마쓰시타(송하) 전기산업은 ‘3D오리얼’을 일본시장에서 판매 개시, 차세대 게임기시대가 막을 열었다. 뒤이어 세가 엔터프라이즈가 금년 가을 ‘사탄’ (가칭)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가을에는 닌텐도(임천당)가 64비트 제품인 ‘프로젝트 리얼리티’ (프로젝트명)로 이 시장에 뛰어들다.

차세대 게임기의 최대 특징은 기존 게임기에서는 재생 불가능한 3차원 CG화면은 물론 실제 사진과 같은 영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 게임기 메이커들은 8비트에서 16비트로 옮겨가는 것과는 의미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단순한 버전 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비디오 온 디맨드(VOD)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으로서 기대하고 있다. 이때문에 각 게임기 메이커들은 고속연산이 가능한 RISC형 CPU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면에서 볼 때 닌텐도와 소니가 채택을

▲일본시장 차세대 게임기 및 채용 CPU

업 체 명	상 품 명	개 발 시 기	체 용 C P U	C P U 생 산
마쓰시타전기산업	3 D O 리 얼	94년 3월	ARM6(영국ARM사)	영국어드벤스디스크
세가 엔터프라이즈	사 탄	94년 가을	SH2(히타치제작소)	히 타 치 제 작 소
소 니 - C E	플 레 이스 테 이 션	94년 말	R3000(미국 뎀스사)	소 니
NEC홈일렉트로닉스	F X	94년 말	V 8 1 0 (N E C)	N E C
닌 텐 도	프 로젝트 리얼리티	95년 가을	R4000(미국 뎀스사)	N E C

주) ①소니CE=소니컴퓨터 엔터프라이즈. ②마쓰시타와 소니CE 외에는 모두 가칭임. ③괄호 내는 설계 개발회사임.

결정한 'R3000/4000'은 3차원 CG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가는 히타치(일위) 제작소가 개발한 32비트형 'SH2'를 2개 병렬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64비트급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반도체 메이커들에게 있어서 이들 게임기용 CPU는 RISC형 MPU의 최대 신시장이다. 이제까지 RISC는 WS외에 채택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전 세계의 WS 출하대수는 50만대 정도이지만 게임기는 히트할 경우 기종당 1,000만대가 판매될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메이커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MPU의 양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사실 닌텐도로부터 수수받은 NEC는 RISC 생산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많은 월 100만개 체제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히타치제작소 역시 100억엔을 투입, 'SH'의 생산을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대당 100만엔 이상의 WS와 5만엔 미만의 게임기를 놓고 볼 때 CPU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샘플용 가격이 5만엔 정도인 MPU도 게임기 용으로는 2만~3만엔 정도로 낮출 것이라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반도체 메이커의 판매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수익은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게임기 시장이 본격적인 32비트내지 64비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어려움이 도사라고 있는 것이다.

7. 일본, VCR·컬러TV 수출 크게 증가

일본의 VCR의 컬러TV 수출이 엔화시세급 등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해외투자공장의 생산을 확대, 엔고를 잘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5월중 VCR 수출은 120만 5,000대로 전년동월의 109만 9,000대에 비해 9.7% 늘었으며 컬러TV 수출도 30만 7,000대로 전

년동월의 24만 2810대에 비해 27%나 증가했다고 일본전자공업협회(EIA)가 발표했다.

일본의 VCR 수출이 이같이 증가한 것은 대미 및 대 EU(유럽연합) 수출이 25만 4312대 및 10만 6253대로 전년동월비 각각 25%, 4.3% 줄었으나 월드컵 특수 등에 힘입어 대중수출이 15만 7464대로 257%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컬러TV 수출도 대홍콩 및 중국수출이 10만 1032대 및 10만 5725대로 71% 및 18% 늘어남에 따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일본 내수에서는 VCR이 30만 5,000대로 3.2% 늘어난 반면 컬러TV는 53만 대로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본메이커들이 엔고에 대처, 해외생산 및 수입을 확대하면서 5월중 VCR 수입은 14만 568대로 전년동월비 155%나 증가했고 컬러TV 수입도 44만 4198대로 66%나 늘어났다.

반면 일본내 생산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VCR의 경우 11% 준 120만 8,000대, 컬러TV는 9.0% 감소한 74만 3769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고량은 VCR의 경우 91만 8,000대로 21% 감소한 데 비해 컬러TV는 76만 6134대로 13% 증가했다.

8. 러, '자유무역지대' 관련법 마련중

야코프유린슨 러시아경제차관은 가까운 장래에 외국인투자 및 세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최근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책자문회의에서 말했다.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법령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기업설립시에도 장기적으로 토지소유를 인정키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소득세와 관세법도 손질을 가해 외국인투자액이 1,000만달러 이상으로써 전체지분 중30% 이상인 외자합작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3, 4차년도에는 각각 총소득세의 25%와 50% 만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또 엔지니어링제품, 기술, 원자재, 부품 등을 수입시에는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외국은행이나 국제금융기관에 의해 기업에 제공된 외화차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400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격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 곡물을 수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지난 '91년 우크라이나는 3870만톤의 곡물을 거둬들이는데 머물렀고 지난 '92년에도 3850만톤의 곡물을 수확하는데 그쳤다.

9. 중국 통신독점체제 붕괴

독점체제를 유지하던 중국의 통신산업이 새로운 통신기업의 등장으로 일대 변혁을 맞게 됐다고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이번주에 신규 통신기업인 차이나 유나이티드 텔레콤(유니콤)사가 공식적으로 탄생함으로써 통신서비스의 개선 뿐 아니라 외국 통신기업들에게 엄청난 시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통신산업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적인 통신기업들은 이미 시장세어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경쟁태세에 돌입했다. 프랑스의 알카텔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AT&T, 모토로라, 일본의 NEC, 후지쯔, 캐나다의 노던 텔레콤, 스웨덴의 텔레폰 에릭슨 등 최대규모의 통신장비 공급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니콤과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생기업인 유니콤은 전자공업부 및 철도공

업부의 지원도 받고 있다. 유니콤의 설립은 최근까지만해도 통신서비스를 독점해온 우전부와의 한판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유니콤의 출현으로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열찬 자유시장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부총리는 통신부문에 있어서 경쟁방식의 도입과 독점제 폐지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각 부문의 완전한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니콤은 앞으로 우전부와 경쟁을 벌이게 되고 넓은 범위의 통신제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중국 관리들은 밝혔다. 미 통신기업인 나이넥스 네트워크 시스템사의 마이클 헤스 부사장은 유니콤의 탄생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유니콤은 나이넥스를 고문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나이넥스 지사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나이넥스는 유니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최초의 외국 기업이 됐다.

10. 중국, 올해 무역적자 150억불규모

중국의 금년도 무역적자는 인플레이 및 급격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거의 19%증가한 15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관영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금년초부터 5개월동안 수출이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나 통상 중국의 수입실적은 최종분기에 급증, 대규모 무역적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중국은 4년 만에 처음으로 122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금년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이 24.1%, 수입이 18.1%증가한 가운데 무역적자는 18억달러를 기록했다.

북경소재 인민대학교의 주 리난 교수는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를 초과, 정부목표인 9%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주 교수는 또한 물가 역시 적어도 12% 상승함에 따라 대외무역균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주 교수의 말을 인용, 수입관세 및 쿼터축소를 골자로 하는 최근의 정부조치 역시 수입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재가입의 일환으로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 독일 지멘스, 중국에 최신기술이전

독일의 지멘스사가 최신 개인통신시스템 제조기술인 하이콤(HICOM)-300을 상해에 이전하고 상해 포동신구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쿠르트 렌츠 지멘스 개인통신시스템 사장이 밝혔다.

지멘스는 이미 상해와 북경에 2개의 하이콤-300시스템은 단순히 음향을 전송할 뿐 아니라 화상과 데이터를 전송할수 있는 기능도 겸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호텔, 작업장, 정부기관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지멘스는 이 기술을 상해에 있는 지멘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이전기로 결정했다. 동사는 지멘스와 2개의 상해 파트너 및 1개의 북경 파트너가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이다. 중국에서의 제조는 낮은 생산비용과 저렴한 임금을 활용함으로써 이 시스템의 가격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동 법인은 중국에서 약 100만회선의 주문을 받았다. 지멘스는 아직까지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금년에 50만회선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합작법인은 현재 오는 10월 가동에 들어갈 대형 공장을 포동지구에 건설중이다.

이 합작법인의 또다른 주요 목표는 베트남, 몽고와 같은 중국의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한 동남아시아 시장을 의욕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렌츠 사장은 밝혔다.

12. 독일, 정보기술시장 급성장

독일의 정보기술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신제품개발이 봄을 이루고 있다.

작년말 현재 독일의 정보기술시장 규모는 수입을 포함, '80년에 비해 2배로 급증하는 호조를 기록했다.

작년 약 650억 마르크에 달한 거래액중 자료관리기술이 50%를 차지했고 통신기술 및 사무실설비기술은 각각 40%, 10%를 차지했다.

여기에 연간 거래규모가 350억 마르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부문을 포함시킬 경우 독일정보기술시장 규모는 1,000억 마르크를 기록, 거래규모면에서 전통산업인 철강산업, 광업, 섬유산업을 앞지르고 있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된 독일정보기술협회에는 현재 아그파-게베르트-그뤼페, 애플 컴퓨터, IBM 컴퓨터, NCR 컴퓨터, 지멘스, 유니시스 등 약 100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러나 부문별로 볼 때 퍼스널 컴퓨터분야는 지난 2년간 성장곡선이 둔화세를 나타냈고 통신기술분야도 작년 경미한 성장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보기술분야에서도 외국기업과 상품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세계유수의 컴퓨터메이커들이 독일에 진출, 자사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반면 독일기업들은 해외현지생산 강화와 기업활동의 국제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보기술분야가 성장유망산업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현 추세대로라면 독일사무실설비 및 자료관리기

술분야의 수입증가현상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정보기술분야에서 기술발전과 극심한 기업간 경쟁으로 인해 구조개편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독일정보기술협회의 프란츠 쉐러 회장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부문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보기술시장의 가치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서비스, 시스템설치, 컨설팅 등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극심한 기업간 경쟁, 가격압박, 전략적 제휴, 생산공장의 해외이전, 판매구조의 효율성 증가 등으로 제품의 혁신과 생산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이 신상품 및 아이디어개발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사무실들도 전문가의 도움없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기기들의 홍수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2천년까지 모든 일자리의 70%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고 현재의 정보기술발전속도라면 모든 사무실이 10년에 한번씩 사무기기를 새롭게 바꿔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 ADB, 「아시아 3각 성장지대」 창설 제안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간 성장의 삼각지대를 구축하는 구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나 이를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이 삼각성장지대 구상은 인도네시아의 아체 및 수마트라북부, 말레이시아북부, 태국남부 등을 하나의 성장경제권으로 묶어 역내 2,100만 인구를 대상으로 한 상업 및 무역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터 설리반 ADB 부총재는 ADB가 연구조사한 보고서에서 이들 3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크데다 사회문화적 유대, 정치적 의지 등이 뒷받침돼 이 삼각지대구상이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그러나 ADB 등이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이 구상을 실제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로운 세계무역 시스템, 건전한 거시경제관리 등이 이 삼각지대 성공에 긴요하며 3국간 정보흐름의 증대, 지역경제협력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기구설립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높이고 경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해야 하며 행정 및 제도개편 뿐만 아니라 공동프로젝트 추진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스트럭처 합작투자를 통해 3국간 경제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며 농업,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새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각지대구상은 역내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위해 노동력 이동에 관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구상은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이 보장될 경우 지역산업의 개발은 물론 노동, 운송, 원자재 등의 비용이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DB의 윌리엄 톰슨 대외관계자문위원회는 최근 ADB가 준비한 보고서는 동삼각지대의 추진비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역내 교역과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각국 정책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부문이 인프라스트럭처 등의 프로젝트금융을 리드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